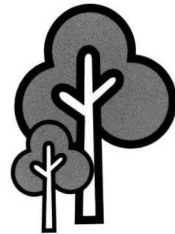




숲도 생명,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산림학자 최윤정(37) 씨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산에서 뛰어논 적이 많았다. 할머니와 함께 머루, 달래를 따러 산에 오르는 기억도 또렷하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꿈은 의사였다. 진로 수정을 과감하게 한 때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교련시간에 양호선생님이 가운 입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삭막한 느낌이 들었죠.”

차씨는 식물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농대로 방향을 바꿨다. 자신도 놀라리만큼 갑작스런 변화였다. 그런데 막상 전공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마치 물 만난 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도 왜 하필 산림학이었나 묻는다면 설명하긴 어렵다. “아마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행복의 기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학자로서 학문적 연구 외에도 그녀는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의 운영위원으로, 숲 탐방교육 전문강사로 숲의 대중화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 숲의 대중화는 곧 자연과학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물들은 왜 바흐를 좋아할까》에서는 식물을 의인화시켰다. “우리가 무심히 보아 넘기는 나무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기체라는 것이 인식되길 바랍니다. 이런 인식 전달을 위해 사람에 비유해 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외부에 미미하게나마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나무의 삶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준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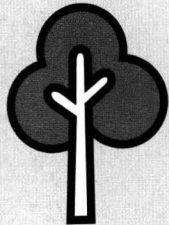
《우리 숲 산책》은 전국의 우리 숲을 돌아보고 낸 근작이다. “집필의 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아서도 다녔어요. 무엇보다 욕심이 생겼어요. 적어도 이렇게 한번 들고 나면 감히 우리 숲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겠지 싶었어요. 누군가 우리 숲에 대해서 심오한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을 다녀온 제가 더 설득력 있고 현장감 있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학문적 소신이 있었죠. 생태계라는 것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숲에 관심을 가지는 마니아층이 소수지만 존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과 가끔 숲 탐방을 가기도 한다. 많은 이들 중에서 유독 그녀를 부끄럽게 만든 이가 있었다.

“수문출판사라는 산악, 숲 전문 출판사가 있습니다. 가끔 기행할 때 사장이 오세요. 저는 단순히 사업적 차원에서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출판사 경영사정이 그리 좋지 않더군요. 산이나 숲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당이 없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 출판을 해주셨던 거죠. 산에 가시면 제 뒤에만 따라다니셨는데 실제로 저보다 더 이 분야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다섯 권에 이르는 저술활동을 하면서 산림학이라는 전문분야에 매몰되지 않



았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연성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나친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어렵다는 평도 있지만 그녀의 글들은 일반인도 읽기 쉽다는 얘길 듣는다. 문체와 구성, 모두 독자를 염두에 둔 그녀의 시도들은 다 행히 값진 결과들을 얻었다. 글 쓰는 보람은 독자들이 얻어주었다. 어떤 의사는 그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동안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길이 막힐 땐 이제는 가로수를 바라봅니다. 가로수를 보고 있노라면 짜증스럽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마치 자연은 내버려두기만 하면 자연의 역할을 다하는 듯이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숲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단순하게 변해요. 몇 개의 종만이 살아남고 나머진 도태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연을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름답고 울창한 자연을 가지려면 아직도 100년은 기다려야 해요. 그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면 숲이 고생을 좀 덜 하고 빨리 안정적인 숲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잘 가꾸고 도와주는 숲이 진짜 아름다운 숲이라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숲도 가꿔야 된다는 의식이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는 4월에 꽃과 관련된 책을 낼 예정이다. 얼마 전에 아동용으로 나온 《열려라 꽃나라》라는 꽃 이야기의 어른용인 셈이다. “예전엔 꽃이라고 하면 여성에 대한 찬사였는데 지금은 나약하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꽃은 식물학사에서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꽃이 있음으로 해서 식물이 다양해졌죠. 또 꽃은 모든 식물의 바탕입니다. 꽃을 편향되게 인식한 것이 문제죠.” 여성이 꽃이 되어야 사회가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변화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숲 전문가인 그녀에게 숲이 언제 가장 아름다웠을까. “숲이 비에 젖어 있을 때, 물에 차 있을 때가 좋았어요. 지리산 노고단 초원에 안개비가 내렸을 때 차가운 느낌과 물에 풀향이 녹아 있는 듯한 공기의 냄새 등이 정말 좋습니다. 빗물이 선운사 동백에 멀정게 번지면서 떨어질 때도 아름답죠.”

14년을 넘게 숲에서 살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침에 숲으로 배낭하나 메고 나갈 때면 모두 잊어버린다는 차윤정 씨. 앞으로 보폭을 더욱 넓혀갈 그녀의 우리 숲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